

## 일동면에 종합온천테마파크 건설

### 온천과 골프장 갖춘 '칸리조트' 6월부터 본격 분양

포천시 일동면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선다. (주)한우리웰드리조트는 200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기산온천지구내 165만㎡(50만평)에 7천억원을 투입,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스파, 골프장,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종합 온천테마파크인 '칸리조트'를 건설중이다.

수도권 북부에서 최대 규모의 칸리조트는 운악산과 산정호수 등 유명 등산코스과 온천, 명승지가 있고 예로부터 산자수명한 포천시 일동면 대자연속에 자리잡아 누구나 한번쯤 가고 싶은 명소를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칸리조트는 회원권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의 편의와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 강남 삼성역 부근에 모델하우스를 세우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칸리조트는 18홀 골프장, 실내의 워터파크와 스파, 콘도미니엄이 구비된 사계절 종합리조트로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3세대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칸리조트는 지하 700m 천연암반 온천수가 객실은 물론 워터파크까지 공급되는 전천후 휴양리조트다.

포천시 지정 기산온천지구내에 자리한 칸리조트는 사계절 내내 온천수를 즐길 수 있다.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일출리온 온천인 기산온천수가 객실까지 직접 공급돼, 테라스나 실내에서 스파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칸리조트 단지내 기산약수는 조선개국초 왕자의 난을 피해 함흥으로 낙향했던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오다 포천에 머물면서 마셨다고 전해질 정도로 뛰어난 수질을 자랑하고 있다. 또 단지내 설치될 '웰니스센터'는 전세계 테라피 요법을 모두 갖춰,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포천시 일동면에 건설될 종합 온천테마파크인 '칸리조트' 조감도.

칸리조트 인근에는 백운계곡, 운악산, 산정호수, 청계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등산코스가 갖추어져 있고, 겨울철이면 수도권 관광객과 스키어들이 몰리는 배어스타운, 이동온천지구, 웨스턴밸리사격장, 허브아일랜드, 고모리 모형자동차 경주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볼거리가 어우러져 있어 가족단위 휴양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칸리조트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이다. 서울의 강남, 강북 어디서든 5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40km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국토 47호선 일동 IC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칸리조트는 평일 50분, 주말 1시간이면 언제나 도착이 가능해 수도권 어느 리조트보다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서울의곽순환도로가 지난해 개통된데다, 서울~포천 6차선 민자고속

도로가 올해말 착공돼, 2013년 완공되면 서울에서 30여분만에 도착이 가능해 지는 등 매우 편리한 교통조건을 갖추어 출퇴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분산으로 접근성은 한결 나아지게 된다.

콘도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1가구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청약가점제'에도 전혀 영향이 없어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는 최상이다. 칸리조트는 국내최초로 우리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PFV 1호 사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금호생명이 공동투자자로, 두산건설이 책임시공을, 삼성에버랜드가 조성시공 및 골프장 운영컨설팅을 맡는 등 국내 최고 기업들

이 망라돼 국내 어느 리조트보다 신뢰와 확신을 주고 있는 프로젝트다.

칸리조트는 69㎡(21평)에서부터 512㎡(155평)까지 8개 평형, 총 428개의 객실을 갖추고 6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21평형, 2100만원에 필두로 최대 럭셔리 평형인 155평형, 37억원까지 다양하다.

참담회원은 정상 분양가격의 10%(일시 불은 7% 추가할인)를 할인해주며, 정회원에게는 워터파크, 스파와 휘트니스클럽 및 비즈니스센터 무료이용 혜택, 그리고 무기명, 가족, 지정회원에게는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골프장의 경우, 회원자격에 따라 그린과 면제와 주말부금 100% 보장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지금 포천은 이렇다 62

### 30억원 추가공사비 없어 대학이전 포기

####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 유치사업 물거품

포천시가 일동면 기산리 산20-1번지가 추진하던 예원예술대학교 유치사업이 전면 백지화 돼 대학유치의 꿈에 부풀어 있던 일동주민은 물론 포천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5월30일 예원예술대학교 관계자가 포천시와 일동면사무소를 방문하면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 이사회에서 학교 부지 4천여평 토목공사 측량결과 거대한 암반이 자리잡고 있어 평당 7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돼 30억원의 추가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이후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학교이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동면에 사는 한 주민은 "학교이전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해서 기대가 매우 컸는데 대학유치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안타깝다"며 "포천시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예원예술대학교 유치사업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20-1번지 일원 사유지 7만7천130평방미터, 사유지 2만3천148평방미터 등 3만334여평 부지에 건축면적 3만4천400평방미터(1만406평) 규모로 추진돼 왔다.

사유지는 포천시가 지원하기로 하고 사유지만 예원예술대학교에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다.

포천시는 예원예술대학교 사업비로 212억8천300만원을 세우고 2008년도에 도비 19억5천만원, 시비 4억5천만원, 기타 15억원(대학)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비중 용역비 4억5천만원, 기반시설 4억원, 부지매입 15억원, 건축비용 153억3천300만원으로 예원대학교 포천캠퍼스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7년10월19일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포천시와 체결했다. 그리고 2007년11월15일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그해 12월14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과 일동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이 활기를 띠었다.

포천시는 그해 12월20일 도시계획시 설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고 올 1월23일 예원대학교 추진팀장과 부지매입 관련 협의를 실시했다. 다음날 대학유치 진행상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3일 주한미군공여지 2단계 발전종합계획

획 확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를 도시와 주관으로 개최했다.

다음날인 3월4일 주한미군 공여지 2단계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포천시는 경기도에 사업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3월5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과 부지장과의 면담을 했고 4월25일 토목공사비 산정을 위한 지질검사를 예원예술대학교에서 실시했다. 그리고 5월말 예원예술대학교 이사회에서 지질검사 결과 거대한 암반으로 토목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30억원이 더 소요된다는 이유로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 유치계획을 전면 백지화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원예술대학교의 전면 백지와 발표 이전에 포천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 유치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이라는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이전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의지가 미온적인 상태이며, 경기도나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토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이전 계획 승인이 최대 관건임→교육과학기술부 승인신청 후 반러시 이전계획은 완전히 상실하게 됨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부처와 사전 조율 후 이전승인 신청서 제출시기 조정 결정해야 하고 도내에 많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총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포천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변수인 토목공사비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백지화를 선언한 예원예술대학교의 입장에 대해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얼어맞은 기분이라는 것이 일동면 주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포천시의 시민들은 "당초부터 이 부지에 일반용 발전은 예상되었다"며 "사업 포기 명분이 일반용 때문이라면 비용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 시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은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예원예술대학교 관계자는 대학이전 사업을 위해 수도권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부지를 선정,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단순히 일반 때문만은 아닌 것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러시아 나호트카시는 6월16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포천시를 방문했다.

### 러시아 나호트카시, 포천시와 교류 협력 가속화

러시아 나호트카시는 6월16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포천시를 방문했다.

올레그 콜리야딘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나호트카시 대표단은 이번 포천시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태권도, 교육, 경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나호트카시는 인구 18만명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항구도시로서 러시아 극동

지역의 물류중심 지역이며, 관광업이 발달하여 일본 및 미국인들의 방문이 매우 빈번한 지역이다.

현재 조성속이 약 5천명 거주하고 있으며, 포천시 출신 태권도선수가 운영하는 태권도장 4~5개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포천시는 2007년2월 나호트카시를 방문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나

호트카시 대표단에게 관내 대학교, 기업체, 문화 체육시설, 경기도의회를 시찰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나호트카 대표단 방문은 작년 포천시 대표단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양 도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호 호혜평등 정신을 존중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제3대 사장원 포천시시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메트로골프클럽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듯한 아름다운 경관과 필드에 나간 듯 생생한 느낌으로 최첨단 시스템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의 품격을 높여 드립니다.

서동성 사장 올림

### 메트로골프클럽 시설현황

- 300야드 42타석
- 최상의 타감을 위한 최고급 브러쉬 매트 사용
- 편리한 오토티업 시스템
- 스윙분석 시스템
- 스크린골프
- 퍼터연습장
- 병커연습장
- 골프레슨
- 식당



## 메트로골프클럽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80-11  
 대표전화 : (031)543-5800

영업시간 하절기 : 오전 06:00 ~ 오후 22:00 (3월~11월)  
 동절기 : 오전 07:00 ~ 오후 22:00 (12월~2월)

포천신문골프회 회원 10% 할인

